

본고는 대한주류공업협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 해외조사팀에 의뢰하여 조사한 “중국의 주류산업현황”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중국의 주류산업현황

목차

1. 중국 주류산업 현황
 -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 동향
2. 정부지원 및 규제
3. 수입관리제도
4. 주류관련 세금
5. 연료용 알코올현황

1. 중국 주류산업 현황

가. 최근 주류산업 동향

중국의 38,000여 주류제조업체에서는 총3,2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대규모 주류제조업체가 약1,000개 업체이고 대부분은 중소형 업체이다.

포도주, 맥주, 백주(白酒), 황주(黃酒) 네가지 주류가 전체소비량의 99%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맥주 생산량이 2,540.4만톤으로 2002

년에 비해 6.97% 증가하여 2년 연속 세계 맥주생산량 1위를 지키고 있다. 2003년 백주(白酒) 생산량은 331.35만 톤으로 전년대비 2.04%감소하였고, 포도주 생산량은 34.3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하였다.

1) 포도주

포도주는 중국의 일상 소비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연시, 결혼피로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2003년 포도주 생산량 34.30만톤 중에서 산둥, 하북, 길림, 천진, 신장, 북경, 하남, 감숙, 광서, 운남 등 10개 성시구(省市區)의 포도주 생산량이 32.63만 톤으로 전국 포도주 총 생산량의 95%를 차지하였다. 전국 제 5차 공업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년 말 중국의 포도주 업체는 240여개에서 현재는 500개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 포도주업체의 연 평균 생산 능력은 1000톤 이하가 70%를 차지하고, 1000-5000톤의 업체가 20%,

5000톤 이상의 업체는 10% 정도이다.

현재, 생산량 1만 톤을 넘는 업체는 장유(張裕) 장성(長城) 왕조(王朝) 위룡(威龍) 화하(華夏) 풍수(丰收) 통화(通化) 등 7개 업체이며 중국의 포도주 용 포도재배는 구역화(區域化) 기지화(基地化) 우량화(優良化) 규범화(规范化)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3년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이 640만 모(畝)에 달했다. 특히, 길림통화(吉林通化), 장백산(長白山)의 특색포도산지 환발해만(環渤海灣)의 포도산지 회축분지(懷涿盆地), 교동반도(膠東半島), 황하고도(黃河故道) 하서주랑(河西走廊), 신강석하자토로반(新疆石河子吐魯番), 운남미륵(雲南彌勒) 등 저위도(低緯度)고해발(高海拔)의 포도산지가 우량재배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 가입후, 포도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수입관세가 14%로 낮아진 상태) 대량의 해외 포도주가 중국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산 주요 브랜드로는 장유(張裕) 왕조(王朝) 장성(長城)이 있으며 이들 3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52%에 달하며, 3개 업체가 전 업계 자산의 38.1%, 영업수입 56.7%를 차지하고 있다.

2) 맥주

맥주는 주류 전체 소비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중국 맥주업계는 “사스열풍”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2540만 톤을 넘어 2002년 대비 6.97% 증가하였으며, 맥주공업 총 생산액은 561.6억 원(元)으로 2002년 대비 8% 증가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맥주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나 일인당 소비량은 세계 평균 28L의 60% 수준인

18L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청난 시장잠재력을 보고 버드와이저나, SAB 밀러 등 세계적인 맥주업체들이 시장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또는 중국 맥주업체 M&A를 진행하고 있다. ‘Global Beer, Cider & FAB Market to 2007’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 5년 후 소비량이 40%가 증가할 전망이다.

맥주는 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한 소비상품으로서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가치분 소득이 증가하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맥주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북방지역 소비자들이 날씨가 추운 관계로 40도 이상의 독한 술을 선호하는데 비해 날씨가 무덥고 겨울이 없는 남방지역은 상대적으로 포도주 맥주와 같은 비교적 도수가 낮은 주류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전통주인 마오타이(알코올순도 55도)보다 맥주를 마시는 경향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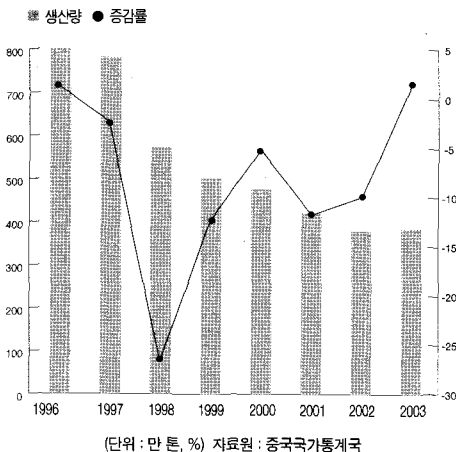
세계 맥주업계를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발전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국 모델로서, 밀러 등 몇 개의 대형 맥주업체를 중심으로 생산 판매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독일 모델로 다수의 업체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형세와 발전추세로 보아 중국 맥주업은 이 두 가지 모델의 혼합형으로 생산 능력과 생산소비는 몇 개의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미국 모델의 양상이 나타나, 브랜드는 집중현상을 보이지 않고 무수히 많은 지방브랜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독일 모델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맥주는 일종의 저단가(低單位), 고운비(高運費) 제품으로 현지 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중국 어느 맥주시장에서든 시장 침투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예외 없이 현지 브랜드이다. 예를 들면 북경에서 연경맥주의 시장 침투율은 97.7%에 달하는데 반해 청도맥주의 시장 침투율은 13.6%에 불과하다. 현재 중국 맥주 업계는 화룬맥주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청도맥주와 연경맥주가 뒤를 잇고 있다.

3) 백주(白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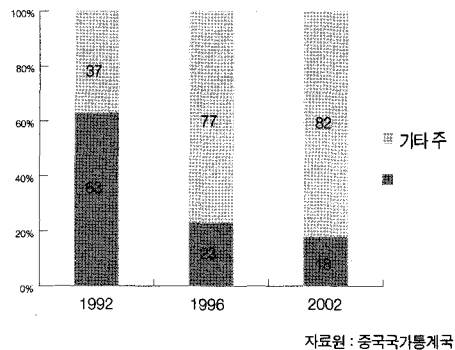
80년대부터 백주의 생산 증가 속도가 빨라져 1996년 중국 백주생산량이 역사상 최고인 801,30만 톤에(건국초기의 80배) 달하게 됨 중국 백주의 생산량은 1975년에서 1980년까지 69% 증가하였고, 1981년에서 1985년까지 57%, 1986년에서 1990년까지 52%, 1991년에서 1995년까지 50.6% 증가하였으나, 1996년에서 2000년까지는 그 이전대비 23% 감소하였다. 1996년 이전까지는 중국 백주업계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통제 불능에 가까웠고, 1996년 이후는 국가의 산업정책 제어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여 그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표1〉연도별 백주 생산량



전체 주류시장에서 백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92년 63%에서 '96년 23%로 떨어진 후 2002년에는 18%대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백주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포도주 등 순한 술을 찾는 경우가 많아진데다 백주 애주가도 양이 많은 저가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값비싼 고급 술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표2〉주류 소비에서 백주가 차지하는 비중



실제로 국주(國酒)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마오타이(茅台)와 2001년부터 최고급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웨이징팡(水井坊)과 같은 고급 백주는 전체 백주 생산량 감소세와는 관계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오타이는 전체 백주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도 연간 생산량이 1998년 5,365톤에서 2003년 9,757만 톤으로 5년새 81.9% 늘었으며 웨이징팡은 술 자체도 고급이지만 술병 내부에 장식품을 넣어 고급 연회용이나 선물용으로 중국인 사이에 인기를 끄는 등 고급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3만 7,000여 개의 백주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가 업계 전체 이익의 97%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소 주류 업체에 대한 지분참여 등을 통해 백주시장에 들어

오는 외부 투자자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맥주제품 전반적으로 알코올 도수를 내리고 있어 알코올도수 60도 이상의 고도백주(高度白酒)는 이미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50-55도의 백주가 고도주(高度酒)가 되었고, 40-49도는 강도주(降度酒), 그에 반해 39이하의 백주는 저도백주(低度白酒)로 분류되고 있으며 저도백주의 생산량이 맥주 총 생산량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짙은 향기형 맥주가 70%가량 차지하며, 옅은 향기형 맥주가 15%, 겸향(兼香)이나 장향(醬香) 및 기타 향기형태의 맥주가 15%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대형맥주기업으로는 귀주 마오타이주(酒)그룹, 우량에그룹, 사천투오파이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4) 황주(黃酒)

황주는 영양가치가 뛰어나고 인체 건강에 유익한 주류로서 20여종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유기산, 비타민B군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생산원가가 맥주보다 낮아 가격면에서 광범위한 소비자군을 확보하고 있다. 2003년 주류별 생산량을 보면, 맥주가 2540만톤, 백주 300여만톤, 포도주 30여만톤, 황주는 140여만톤으로, 전체 주류시장의 5%를 차지하였다. 절강의 소흥은 중국최대의 황주 생산 및 수출기지로서 연생산량이 25만 톤으로 전국의 20%, 연 수출량은 2만 톤으로 전국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는 주로 강서, 절강, 상해, 복건 등지에 집중되어 있고 소비되는 황주는 주로 절강 소흥의 몇 개 기존브랜드와 현지산의 선황주(鮮黃酒) 등이며 선황주(鮮黃酒)의 품질은 그리 안

정적이지 못해 유효기간이 짧으며(보통 15일에서 1 개월) 대부분 소규모업체나 가정에서 만들어낸 것들이다. 중국 황주 시장은 도입시장과 인도시장, 성장시장과 성숙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숙시장은 상해시, 절강성, 성장시장은 복경시, 복건성, 광둥성, 하남성, 산둥성, 나머지는 모두 도입시장으로 평가된다.

성숙시장은 기본적으로 황주의 여러가지 품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나 소비자의 감별 능력이

[2001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만톤, 금액-억위엔,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kg)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포도주	25,05	50,76	36000,00	22290,90	9,68
맥주	2273,80	453,72	53757,40	na	
백주	420,19	499,41	na	na	
황주	160,00	44,57	0	0	
합 계	2879,04	1048,46	-	-	9,68

[2002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만톤, 금액-억위엔,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kg)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포도주	29,80	60,006	33405,00	20684,10	9,12
맥주	2386,83	520,00	43585,17	63468,02	
백주	324,85	495,70	na	na	
황주	140,00	39,00	0	0	
합 계	2881,48	1114,70	-	-	9,12

[2003년도 주류시장규모]

(단위 : 수량-만톤, 금액-억위엔, 1인당 소비량-국민1인당소비량,kg)

구분	국내생산		수입		1인당 소비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포도주	34,30	68,58	41179,00	25739,37	na
맥주	2540,48	561,60	43381,40	41520,47	
백주	331,35	545,32	na	na	
황주	148,00	44,46	0	0	
합 계	3054,13	1219,96	-	-	-

* 정보원 : 중국통계국 및 각종 주류관련사이트 종합

강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품종과 제품은 발 딛고 서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반면 성장시장은 여러 등급이 혼재되어 소비자가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주요기업으로는 월통산 소흥주, 소흥 동풍 등이 있다.

나. 주요 주류별 수출입 동향

중국의 포도주 수입현황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 1996년 수입량이 5,930톤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39,670톤에 달했다. 이는 1996년의 6.7배, 1995년의 51배이다. 1998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49,840톤에 달하였으며, 2002년 수입량은 33,405톤으로 전년 대비 6.56%증가 하였다. 2003년 중국 수입 벌크 포도주는 약 3.65만 톤, 평균 수입가격은 리터당 미화 0.51불이었으며 완제품 포도주의 수입량은 약 0.46만 톤으로, 2002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병 포장 평균 수입가는 리터당 미화 2.5불 내외, 주요 수입국은 칠레,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등 10여 개 국이었고 2003년 중국 백주의 수입수량은 1,421.05만 리터로, 2002년 대비 48.54% 증가 하였다. 수입금액은 1,106.7만불로, 2002년 대비 44.36% 증가하였으며 2003년 수출량은 32,446.02만 리터로 2002년 대비 124.34%증가 하였으며 수출금액은 18,476.3만 불로 2002년 대비 43.02% 증가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 맥주수출량은 7,933.9만 리터로 전년동기 대비 54.6%증가하였고 수출액은 4,030.1만불로 58.6% 증가하였다. 맥주수입량은 2,472.4만 리터로 8.4%, 수입액 2,834.5만불로 1.12% 증가하였

으며 황주의 2003년 수출량은 4만톤이었다.

2. 정부지원 및 규제

식품위생법, 제품품질법, 상표법, 소비자권익보호법등 관련법규와 국가 규정에 의거 주류업계 경영자격과 제품판매의 합법성 집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주류업생산경영기업에 대하여 주체자격, 경영범위, 경영조건, 의법 경영 등의 정리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무허가 생산경영, 저질위조주류제품의 제조, 상품의 품질보증이 구비되지 않은 기업(개인사업자)을 단속하고, 합법생산의 경영자격을 구비하였으나 그 경영행위가 규범화되지 않은 기업을 제한하는 한편, 합법경영자격, 경영행위가 양호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저질위조주류제품의 중점지역, 중점시장, 중점기업(일반시장, 호텔, 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창고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출처나 그 유통과정이 불분명하고 처리과정이 완전치 않은 주류는 일괄 금지하고 있으며 상품 출시 제도를 엄격히 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등록된 주류업경영업체를 엄격히 관리한다.

3. 수입관리제도

가. 수입허가요건

수입주류국내시장관리방법은 국가경무위, 국가공상국, 세관총서, 국가기술감독국, 위생부, 국가상검국이 연합으로 제정하여, 수입주류 국내시

장의 관리, 수입주류 국내시장 경영질서의 보호, 생산자와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경무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위생부, 세관총서, 국가기술감독국과 국가수출입상품검사국에서는 그 직능에 따라 수입주류대한 세관감독감시관리, 위생감독감시관리(위생검역,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표시”와 위생증서관리), 품질감독관리, 시장경영행위와 시장질서감독관리, 세금징수관리 등을 하고 있다.

수입식품위생, 품질감독 검사기구에서 중국내의 수입주류 진입에 대하여(면세수입포함)감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는 수입주류수출국(지역)의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수입된 주류에는(면세주류 불포함)중국의 《식품라벨통용표준》과 관련규정에 의거 증분표시를 붙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표시로 “수입식품 위생감독검사표시”를 붙이고 위생증서(원본, 사본)를 발급한다.

세관은 수입주류에 적절한 감독관리를 시행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기타 세금을 부과하며, 밀수를 적발한다. 또한 세관은 대외무역경제주관부에서 서명하고 발급한 수입화물허가증과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기구가 서명하고 발급한 통지서로서 세금을 징수하고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입 주류의 도매에 종사하는 업체는 등록자본(금), 경영입지와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도매기업관리제도를 구비하고, 수입주류에 관한 지식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안정적인 도매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표시”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며

위생행정부에서 발행한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국가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수입화물허가증의 보유(사본 가능), 세관납세통지서(사본 가능), 위생증서(원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 할 수입주류는 반드시 “증분표시”와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표시”를 붙여야 한다. 밀수된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주류 위생감독검사표시, 인증표시, 증분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판매 할 수 없으며 품질, 위생표준 등의 관련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수입절차

수입주류의 국내 반입시에는 1)수입계약 2)수입세금계산서 3)포장명세서 4)운송지시서 5)선하증권(B/L) (이서된 B/L 원본, 팩스전송본 교환) 6)각종수입허가증(세관상품코드상의 규정에 근거)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세관통관 수속을 거쳐 후 수입된다. 국외에서 수입보세구역까지의 수입절차는 1)수입계약(국외판매자가 본회사의 계열이라면 면제) 2)수입세금계산서 3)포장명세서 4)운송지시서(이서된 B/L 원본, 팩스전송본 교환) 5)B/L 6)보세창고입고등기부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수입자가 주류 수입항에서 보세구역내 통관에 필요한 수속절차 마치며 보세구역창고, 세관 신청이란, 수입상의 수입화물을 실제 영업물 처리하여 세관에 신청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하거나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수입 할때는 1)수입계약(보세구내 기업과

무역회사의) 2) 수입세금계산서(보세구내 기업과 무역회사의) 3) 포장명세서 4) 출고명세서(원본) 5) 각종수입허가증(세관상품코드상의 규정에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보세구역세관 통관수속절차를 거치거나, 보세구역 세관화물 검사수속 후 세관통관을 할 수 있다. 세관화물 검사수속 후 세관통관을 하는 경우는 보세구역 내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보세구역 세관이 월별, 계절별로 세밀하게 조사한 후 장부에서 삭제하는 식으로 기한이 정해진 창고와 생산적인 기업이 수입할 때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화물이 먼저 국내에서 판매된 후에 통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허가증을 받는다는 것이 그 특징 이며 국외에서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국내까지 반입할 경우는 1) 수입계약(만

약 국외판매자가 본회사의 계열이라면 면제) 2) 수입세금계산서 3) 포장명세서 4) 운송지시서(이서된 B/L 원본, 팩스전송본 교환) 5) B/L 6) 수입계약 7) 수입세금계산서(보세구내 기업과 무역회사) 8) 각종수입허가증(세관상품코드상의 규정에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항도착 즉시 위탁보세구역외의 무역회사가 대리 수입하거나, 수입자가 직접 보세구역 세관통관 수속 후-국내에 반입하는 방법이 있다.

4. 주류관련 세금

주류관련 세금에는 관세, 부과세, 소비세만 부

HS	품목	관세	부가세	소비세
2203	맥아주조한 맥주 (3000원(元)/톤이상)	0%	17%	250원(元)/톤
2203	맥아주조한 맥주 (3000원(元)/톤이하)	0%	17%	220원(元)/톤
2208	곡류맥주	19.2%	17%	25% + 1000원(元)/톤
2206	황주	53.6%	17%	240원(元)/톤
220410	와인탄산음료	14%	17%	10%
220890	감자류증류주	19.2%	17%	15% + 1000원(元)/톤
220421	소포장의 선포도주양조주, (소포장이란 2리터 이하의 용기 포장)	14%	17%	10%
220429	기타포장의 선포도주 양조원주(기타포장이란 2리터 이상의 용기 포장)	20%	17%	10%
2204	기타포장된 선포도주 양조원주, (기타포장이란 2리터 이상의 용기 포장)	20%	17%	10%
2204	기타양조포도즙, 코드 2009이외	35%	17%	10%
220510	소포장의 배르무트 및 유사주, 2리터 이하포장에 식물이나 향료를 첨가한 선포도주용 술	65%	17%	10%
220590	기타포장의 배르무트 및 유사주, 식물이나 향료를 첨가한 포도주용 술	65%	17%	10%
2206	기타 발효음료, 아직 명명되지 않은 발효음료혼합물 및 발효음료와 무알코올음료혼합물	53.6%	17%	10%
220710	농도 80% 및 이상의 미변형 에칠알코올을 주정농도라 함	40%	17%	5%
220720	임의농도의 변형 에칠알코올	30%	17%	5%
220720	임의농도의 기타주정	30%	17%	5%
220820	증류포도주에서 주조한 열성주(烈性酒)	19.2%	17%	10%
220840	럼주 및 기타 시탕수수증류주	10%	17%	10%
220850	진	19.2%	17%	10%
220860	보드카	19.2%	17%	10%
220870	리큐	19.2%	17%	10%
220890	데킬라	19.2%	17%	10%
220890	주정농도80%이하의 미변형 에칠알코올	19.2%	17%	5%
220890	기타증류주 및 주정음료	19.2%	17%	10%
220830	위스키	19.2%	17%	10%

과되고 있고 주세는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없다.(세무국)

* 매실주, 약주 등 한국의 전통주는 대부분 2206으로 분류, 53.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소주는 2208로 19.2%,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됨

5. 연료용 알코올현황

가. 기술개발 동향

연료용 알코올의 연구발전방향은 첫째 에틸알코올 디젤에 대한 연구 전개, 둘째 농작물의 줄기, 볏짚 등 식물섬유를 이용한 에틸알코올 생산, 셋째 고효율 에틸알코올휘발유 엔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료용 알코올의 품질표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항목	계량단위나 부호	제품등급		
		고급	화학	분석
과량간산칼륨환원물질(0로계산)	%	0,00025	0,0006	0,00025
메타놀	%	0,02	0,2	0,05
염도(OH로 계산)	mmol/100g	0,005	0,03	0,01
밀도(20)	g/ml	0,789-0,791	0,789-0,791	0,789-0,791
수분	%(v/v)	0,2	0,5	0,3
산도	mmol/100g	0,02	0,1	0,04
카르보닐기화합물(CO로계산)	%	0,003	0,005	0,003
외관		맑고투명	맑고투명	맑고투명
에틸알코올	%(v/v)	99,8	99,5	99,7
이프로필알코올	%	0,003	0,05	0,01
이탄화물질	%	합격	합격	합격
물과 혼합시험		합격	합격	합격
증발찌꺼기	%	0,0005	0,001	0,001

나. 연료용 알코올 현황과 전망

중국은 석유의 사용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에 따라 대체연료 연구와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알코올은 당류식물의 발효과정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휘발유에 비해 오염이 적어 알코올휘발유는 국가의 전략적인 신형 대체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석유의 연간 소비량이 매년 13%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연료의 10% 비율로 알코올연료를 첨가한다면 매년 필요한 알코올 소요량은 381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알코올 생산원료는 주로 옥수수과 카사바의 뿌리와 당밀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전국적으로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한 알코올의 생산량은 95만 톤이었으며 2003년도 생산량은 125만 톤에 달했다. 2004년에는 옥수수 알코올의 생산량이 145만톤, 감자를 원료로 생산한 알코올과 당밀을 원료로 생산한 알코올의 총 생산량이 각각 100만 톤, 60만 톤으로 전체 알코올생산량은 305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정부는 대대적으로 알코올연료의 개발과 확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